

## 사료비 인상과 육계 생산비 변화

#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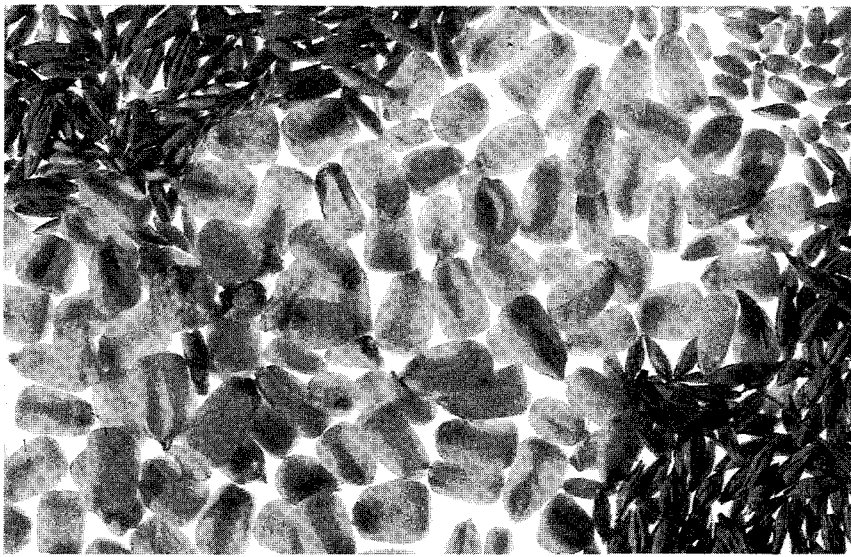
이 현 덕 서부사료(주) 마케팅팀장

육계 생산비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료비이다.

2004년 6월, 초복(7.20)을 약 한달 반 정도 남겨둔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1990년대 중반이후 육계 산업은 IMF시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 곡물 시장이 균형을 잃은 현재, 국내 육계업을 선도하고 있는 계열화업체들과 생산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육계업에 종사하면서 출하후 수익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는 사양가 분들을 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국내 육계 산업은 몇몇의 계열화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육농가의 수익은 계열화 업체의 계약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닭고기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사



육자로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평균 사육성적에서 육성을 95%이상 실력을 갖춘 사육자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항목을 알아보자(계열화업체 절대평가 기준).

첫째, 출하 생체 Kg에 의해 산정된 기본 사육비가 있고 둘째, 출하수수를 기준으로 하는 약품비가 있고 셋째, 사육일수와 관련해서 기후와 계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료비가 있고 넷째, 생체 출하중량 대비 기준사료요구율을 계산해서 총사료사용량으로 산정된 일명 사료보너스가 있고 다섯째, ((육성을\*평균체중)/(사육일수\*사료요구율))\*100을 기준 공식으로 사용하는 생산지수 장려금이 있고 이외에 상차보조비, 깔짚비, 감량 공제비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출하후 농장 경영 분석을 하여야 한다. 최근 5개월여간 사료가격이 2회 인상된 것을 감안하여 사료비 인상이 육계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아보자.

표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닭고기 생산량은 14,250Kg으로써 닭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1차 인상후 43.75원, 2차 인상후 87.5원의 추가 생산비가 올라갔음을 알 수 있고, 인상전 대비 1차 인상후 사료부담금은 14,250Kg × 43.75원 = 623,437원이고, 2차 인상후 사료부담금은 1,246,875원이 발생하게 된다.

50,000수 사육 기준으로 보정하게 되면 1차 인상후 3,117,185원, 2차 인상후 6,234,375원의 사

표1. 사료가격인상 예

구 분	인상전	1차 인상후	2차 인상후	비 고
평균출하체중(Kg)	1.5	1.5	1.5	* 10,000수 사육 기준, 육성을 95% 출하 기준
사료요구율	1.750	1.750	1.750	* 사료요구율은 총사료소비량을 닭 총출하중량으로 나눈값을 말함
사료가격 원/Kg	280	305	330	* 사료가격은 사료 Kg당 평균단가(초기, 전기, 후기)
계육 Kg당 사료비	490	533.75	577.5	* 계육 Kg당 사료비는 사료Kg당 평균단가를 사료요구율로 곱한 값

※ 사료값은 인위적 설정값임)

표2. 사료 가격 인상 및 사료요구율 개선 예

구 분	인상전	1차 인상후	2차 인상후	비 고
평균출하체중(Kg)	1.5	1.5	1.5	* 10,000수 사육 기준, 육성을 95% 출하 기준
사료요구율	1.750	1.606	1.485	* 사료요구율은 총사료소비량을 닭 총출하증량으로 나눈값을 말함
사료가격 원/Kg	280	305	330	* 사료가격은 사료 Kg당 평균단가(초기, 전기, 후기)
계육 Kg당 사료비	490.0	489.8	490.1	* 계육 Kg당 사료비는 사료Kg당 평균단가를 사료요구율로 곱한 값

※ 사료값과 사료요구율은 인위적 설정값 임

료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년 5회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출금을 받아 무창계사를 경영하는 농장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대안은 사료요구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표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사료 인상액 25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사료요구율 0.144을 개선해야만 닭고기 Kg당 사료비가 동일하게 되고, 50원이 오른 2차 인상후에는 인상전 대비해서 사료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료요구율이 1.485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실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사료중에는 사료요구율이 1.5대 사료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료요구율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만 언급해 본다면, 1주말 체중을 최소 140g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지역이나 주변 상황에 맞는 엔디(ND)와 감보로(IBD)백신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감보로가 문제가 되었던 농장이라면 2차 감보로(IBD)백신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더불어 계사 내외를 요오드 계열의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면 도움이 된다.

후기사료 교체시점 또한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료섭취후 유지에너지와 성장에너지로 이용되는 비율을 감안하면 사료효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 육계의 성장 특성상 초기에는 에너지보다는 아미노산과 조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성장후기에는 절대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후기사료 섭취량을 전체 급이량의 60%이상 급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23~29일령사이 폐사가 반복되는 농장에서는 수의사와 상의하여 장염이나 콕시듐을 적정하게 크리닝하면 후기 폐사를 줄여 사료요구율을 개선할 수 있다. 주령별 평균 사료섭취량은 1주 135g, 2주 300g, 3주 570g, 4주 765g 내외를 섭취한다. 입추초기 도태를 간과하고 있는 사양가라면 차라리 사료 섭취가 적은 1주령말 전후에 강선별 도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육계 산업은 모든 상황에서 현재보다 어렵게 변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은 사육 전반에 걸쳐 전문가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춰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우수한 닭고기 품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양계**